# “대구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의 업체들이 시 발전의 중심축을 다시 세워야”

조종수 (주)서한 대표가 옛 영광을 되찾기를 염원하고 있는 대구 건설업계의 수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지난 6월 말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제14대 회장에 취임한 조종수 회장은 “40년 건설 인생과 과거 회장직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 건설산업이 화려한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대에 이어 3년 만에 다시 회장에 오른 그는 외지 업체의 무분별한 진출과 덤핑 수주를 막는 동시에 지역의 업체들이 건물다운 건물을 짓도록 함으로써 ‘건설 명가 대구’를 재현하겠다는 의욕에 불타고 있다. 그는 특히 도심 재개발에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점점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대구 발전의 중심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도 도심 재개발에 대구 업체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대구 건설은 대구를 가장 잘 아는 지역 업체들에게 맡기라는 것이다. 조종수 회장은 이와 같은 염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원사들 스스로의 역량 제고 노력과 함께 대구시와 시의회, 그리고 지방 공기업 등 지방 정부와 발주기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건설 노조와의 소통과 협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취임식에 소요되는 비용조차 무료 배식과 봉사활동 등에 쓰기로 결정하는 등 건설업 이미지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조종수 회장을 지난달 16일 만나보았다. 〈편집자 주〉

**조종수**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신임 회장(서한 대표이사)

**먼저, 3년 만에 다시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단체의 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셔서 그 감회와 의지가 남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2대에 이어 3년 만에 다시 회장직을 맡게 되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취임 후 협회 업무로 대구시와 발주기관은 물론 건설노조, 국세청, 경찰청 등을 오가느라 자리에 앉을 틈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협회의 위상 강화 및 이미지 제고를 비롯한 회원사의 경영 환경 개선 및 수익성 향상, 회원사 간 교류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스 사태 및 메르스 여파 등으로 건설경기가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의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호조와 재건축 · 재개발 물량 증가 등 민간 건설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지역 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지역의 민간과 공공 부문의 건설경기 상황은 어떠한지요?**

대구 지역 건설업체의 작년도 건설공사 실적 신고를 접수한 결과, 전국적으로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도 대구 지역 업체들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공공부문 수주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20% 정도 감소한 5,900억원을 기록했고, 민간부문 수주는 재건축 사업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이 증가하면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 1조 6,700억원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이어 나갔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 내 수주는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지역 업체들의 수주 노력으로 타 지역에서의 수주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호조를 보인 민간 건설경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하므로, 향후 공공부문에서 공사 발주 물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대구 지역 건설경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개발 · 재건축은 마땅히 지역 건설업체에게 맡겨야 합니다. 업체 스스로도 성실 시공은 물론, 브랜드 가치를 키워나가야 하고 지자체나 학계, 협회 등도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둘러싸고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와 문제 해결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업역 갈등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소규모 복합공사를 자격과 능력이 의심스러운 전문건설업체에게 맡길 경우 종합 관리 부재로 인하여 시설물의 품질이나 국민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으며, 자칫 건설업 시장 구조를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에는 일정 수준의 예외가 허용되기 마련이지만, 예외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법의 기본 원칙마저 훼손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합니다. 가뜩이나 일감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역 중소 건설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지난 12대 회장직을 수행하시며 쌓은 풍부한 경험이 이번 14대 임기 동안 협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협회 차원에서 지역 건설업계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선, 협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주기관과 정기 모임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모든 회원사의 협회 운영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적정공사비 확보, 발주자의 적폐 행위 근절, 대형 공사 분할 발주, 재정사업 집행 유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정례화 모임 등을 통해 회원사의 경영 환경 개선 및 수익성 향상을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급식, 신천 정화 등 사회공헌 활동의 확대를 통하여 협회와 건설 이미지 향상을 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대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공약 중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는 것이 목표인데 혼자 힘으로는 작은 공약 하나도 실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계 기관 및 회원사들과 협력하여 하나하나씩 풀어 나가며 협회가 회원사들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건설시장에서는 일감 부족 외에도 수익성의 부족 또한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수익성 향상을 위하여 어떤 사항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 대다수가 공공공사 수주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데 최근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일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한, 공공공사를 많이 수주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기형적인 구조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공사 설계 용역 발주시 합리적인 단가 정착을 유도하고, 발주자의 불합리한 적폐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대형 공사에 대해서는 분할 발주를 통해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적격심사제 대상 공사로 유도하고,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시 법정 요율 기준으로 산정, 적정 설계 단가 유지 등 개선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협회는 전 회원사의 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역시 공공 수주 물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악화된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체질 개선과 첨단 · 친환경 등 새로운 건설 수요에 부응하는 新시장 개척 등의 자구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장님의 40년 건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과 향후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근래에 화성산업 창업주이신 故 이윤석 회장님이 작고하셨습니다. 조사(弔詞)를 작성하기 위해 이 회장님의 58년 건설 인생이 담긴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천에 여러 교량과 정수장을 건설하고 공장을 세우고, 도로와 철도를 놓는 등 대구 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SOC 건설에 앞장서신 발자취를 보고 나니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도로나 교량, 터널, 상수도 등은 모두 건설인의 손을 거쳐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나 건설이 주는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아는 이가 적을 뿐더러 오히려 건설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하는 이들이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집을 한 채 지어도 멋지게 지을 수 있는 건설인이 되고자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건설산업이 품격 있고 또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산업이 되도록 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CERIK

글 · 사진 : 이형우 편집장, 인흥진 연구원